

탐방 불자약사 보리회



불자약사보리회는 1년 내내 점심을 김밥으로 때우기며 매월 둘째주 일요일 탐골공원에서 무료 점심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다.

외롭고 아픈 사람들의 '약손'

작년 약사 14명이 결성 탐골공원에서 무료 투약

"할머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나오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건데요. 조금씩 운동하시고, 식사 잘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희가 다음달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니까 그때 또 나오세요."

매일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울 탐골공원에선 진경경이 보여준다. 적게는 1천3백여명에서 많을때 2천여명에 이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실직노숙자들이 봉사활동을 나온 대한불교조계종 불

자약사보리회(회장 백숙희)의 무료 검진을 받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서 있다.

외롭고 지친 이들에게 약손이 되어주는 불자약사보리회. 98년 9월 14명의 약사들이 모여 결성한 신행회로, 1년째 탐골공원에서 무료 검진 및 투약을 실시해 오고 있다. 회원들이 각축하는 회비와 의약품도 한계가 있어 매일 약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자약사보리회는 1년 열두달 점심을 김밥 한줄로 때우며 지비 실천하고 있다.

유선인화 총무는 "이제는 목이 쉬어가며 질서를 잡아주는 든든한 할아버지도 생겼고, 조건없는 베품에

감동했다는 말과 함께 5만원이 든 봉투를 던지시 내미는 젊은 아저씨 후원자도 생겼다"고 말했다.

백숙희 회장은 "어느 누구나 부처님 말씀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실천하고자 마음은 많지만 한 사람 한사람이 힘을 모아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내실있는 모임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천원 1구좌 운동을 벌이며 사찰과 불자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불자약사보리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약사보살의 화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행 829-21-0593-249(백숙희) 도필선 기자



부천 원종종합복지관 개관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8월 31일 지역민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원종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고산(조계종 총무원장) 양산(조계종 사회부장) 영담스님을 비롯해 원혜영(부천시 시장) 안익순(부천 시의회 의장)씨 등이 참석했다.



연꽃마을 우만어린이집 개원

연꽃마을은 수원시로부터 위탁받은 우만2동 소재 우만어린이집 개원식을 8월 30일 거행했다. 우만2동 어린이집(원장 김미경)은 지하층 지상2층의 규모. 이날 개원식에는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을 비롯해 심재덕(수원시장) 김영서(수원시의회 의장) 이우영(수원시 팔달구청장) 양종천(수원시의회 의원) 등 지역인사와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했다.



화성 경찰서 경승실 개원법회

경기 화성경찰서 경승실장 성호스님(조계종 연수국장)은 8월 31일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증빙법사로 경승실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정오, 용주사 총무 심경, 천불사 총무 도은,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과 우재항 서장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는 화성경찰서 및 산하 파출소 소속 불자 경찰관 등 5백여명이 함께 했다.



불기협 연수회 성료

한국불교지학협회(회장 하헌생) 99년도 하계 연수회가 8월 28~29일 양일간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불기협의 이번 연수회는 예불 및 108배 정진, 사찰순례, '교계 현실과 불교언론의 나아갈 방향'(김병규 문화일보 전 편집국장)과 '취재기자의 사진촬영 기법'(조명동 경향신문 전 사진부장)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대중속에 꽃피는 '직장불심'

경 불 회 환자위해 음악회 열어 실 상 노인 영정사진 무료 촬영 포항운불 지역장애인 수송 봉사

8월31일 오후6시30분 경희의료원 로비, 경희의료원불자회 경불회(회장 황보추)가 연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한창이다. 환자복 차림에 링거를 꽂고 있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휠체어를 탄 환자, 목발을 짚은 환자, 손에 깎자를 한 환자 등을 비롯 그 가족으로 보이는 2백여명의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로비를 가득 메웠다. 운송 병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강수 불자가수회 회장을 비롯 10여 명의 불자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며 우스갯 소리를 하는 사이 환자들의 열띤 환한 웃음이 배어났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는 듯 했다. '종종아까씨' 금사향씨가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경희의료원불자회 경불회가 '환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건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매주 정기

법회를 열어 개인 신행활동에만 주력해온 경불회는 그동안 일반 신행회는 물론 직장직능불자회들이 포교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면서도 불자들만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에 앞장서 왔던데서 벗어나 타종교인을 비롯한 일반인을 향한 포교전략으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불교 대중화' 새들짜기에 나선 것은 사진동우회 심상(회장 하애영)도 마찬가지다. 2일 석왕사에서 부천 천 지역민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를 갖고, 포교 전선에 나섰다.

심상은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공해 불교를 인식시킨 뒤 점차 그 가족과 이웃들로 포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애영 회장은 "창립이후 줄곧 포교를 위한 동우회 활동방향에 대해 모색해 왔지만 전



직장직능불자회가 대중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경불회는 8월31일 '환자들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열어 병원 이용자들에게 불법의 향기를 전했다.

국 사찰을 순례하며 찍은 불교사진 전시회를 갖는게 고작이었다"며 "불자들이 한정된 포교가 아닌 타종교인들까지 포용하는 포교방안을 강구하는 대중화운동을 벌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권용재)는 장애인 무료수송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불교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달리는 법당' 포항운불련 회원들이

평불·정불·과천신도회 운문사·표총사 순례

평생불자회, 정부 과천종합사회복지회 불자 모임 정불회, 과천신도회는 8월 28~29일 청도 운문사, 밀양 표총사 합동 성지순례를 가졌다. (사진) 정불회와 과천신도회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평생불자회 김경호 회장의 인연으로 지역 신도회의 직장불자회가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이번 성지순례에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성지순례단은 첫날 운문사에서 천배 철야 관음정진, 금강경독경에 이어 둘째날 표총사와 지난 3월 세



말의 땅을 흘렀다는 사명대사 비를 참배했다. 운문사 주지 해은스님은 투병담과 함께 "지극정성으로 신행하면 부처님께서 꼭 가피를 주신다"며 "정법에 귀의해 부끄러움이 없는 불제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모임에선

한화갑·노무현의원 가입



새정치국민회의 불교신행모임 연동회(회장 박상규)는 8월 말 한화갑 국민의회의 사무총장(사진왼쪽)과 노무현 동남발전특위 위원장(오른쪽)의 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두 의원을 연동회 고문과 부회장에 추대했다.

서경인 교사련 창립 2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11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서울·경기·인천지부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초청법사 조계종 포교원장 정연스님을 비롯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인천 교사불자연합회는 그동안 매월 한차례씩 정기법회(홍수달)와 성지순례(막수달)를 가진 것은 물론 청소년포교를 위해 힘써 왔다.

'좋은방송을...' 41호발간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6월부터 8월까지의 방송 모니터 모음집인 <좋은 방송을 위하여> 통권 4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논단 '불교의 방송 참여 전략과 프로그램 활용 방안', '통합 방송법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본지 제234호 5면 고침 부산불교거사협회 탐방 기사의 회장 서영건씨를 엄영건씨로 바로잡습니다.

"장애인들의 손발이 됩시다"

하이텔 칠연회 수계법회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정기문)는 11~12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99년 하반기 수계법회 및 칠연회 전국모임을 개최한다.

하이텔불동은 하이텔내 증중장애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게 만날수 있도록 결성된 칠연회 소모임을 계기로 누구나 불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 전국모

임은 저녁예불, 회원간 자기소개, 퀴즈쇼, 경매, 노래자랑, 수계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수계법회에는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참여한다.

정기문 대표사상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불법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좀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간

육바라밀이 어렵다고요?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지음 / 4×6판 / 186면 / 3,500원

좋은 세상을 여는 보시·

해탈의 주춧돌인 계율·행복의 묘약인 인욕·

향상된 삶을 보장하는 정진·평화로움을 되찾는 선정·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이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진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천하지 않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고 알기 쉽게 엮은

이 한 권의 책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이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위한 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4×6판 / 160면 / 값 3,5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조형물은 어느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찰 초입(初)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우리 불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국판 / 320면 / 7,000원

이야기로 풀 '오분량 예불문'!!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 I. 새벽예불
- II. 오분량례
- III. 부처님아시어, 크나큰 진리여
- IV. 거룩한 사대보살
- V. 영산회상의 제자들
- VI. 불법은 승모가 호지한다
- VII.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 240면 / 5,000원